하늘기쁨 땅감사 없는 변태의 삶

(출22:16~31)

16.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기쁨 땅감사 없는 변태의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늘기쁨 땅감사 없는 변태의 삶'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선민의 삶은 한 마디로 하늘로 기뻐하고 땅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생활화와 더불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으로서 좌우명과 모토로 삼는 것이 바로 '하늘로 기뻐하라, 땅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로 기뻐할 수 없고, 땅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변태의 삶인데, 하늘로 기뻐하지 않고 땅으로 감사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땅으로 기뻐하려 하고 하늘조차 땅에서 얻을 기쁨을 위하여 동원하는데 이제부터의 삶은 변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변태(變態)'라고 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욕망을 갖고 있거나, 그러한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변태라고 말합니다만, 실상은 글자

그대로 본래의 형태가 변하여 달라진 모든 것이 변태이고 다른 말로는 탈바꿈입니다.
예를 들면 식물에서도 가시는 줄기의 변태입니다. 줄기가 변해서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변한 것이고, 덩굴손도 마찬가지이고, 감자나 고구마도 뿌리가 변태한 것으로 이러한 변태는 인간들에게 유익한 변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태의 모습은 그 자체로 행복도 변태가 되고, 기쁨도 변태가 되고, 만족도 변태가 되기 때문에 변태의 만족과 변태의 기쁨과 변태의 행복으로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정상적이어야 하고, 행복도 정상적이어야 하므로 이 변태의 모습은 고쳐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다 아는 대로 16-17절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고 삼을 것이요 /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라고 하십니다.
혼인 전에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했으면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패물을 주고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딸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버지가 그 남자를 사위로 원치 않을 때에는 그 딸을 범한 죗값으로 패물을 드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맥이 이어지지 않는 듯이 말씀들이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무당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시고,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말씀의 맥락이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라고 하시는데 언뜻 보면 제 1계명인 “여호와 외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맥락이 끊어지며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라고 하시고 또 맥락이 끊어지며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말씀들의 나열을 통일적으로 엮고 있는 주제가 바로 변태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태는 우리의 삶의 다방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약혼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짐승과 행음을 하는 수간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과부와 고아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변태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변태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이십니다.

자, 변태의 삶이 나타나는 이유와, 인간의 삶의 다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현상으로 그

변태의 내막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감각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열을 느끼는 온점, 차가움을 느끼는 냉점, 압력이나 접촉을 느끼는 압점, 고통을 느끼는 통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냉점이 없으면 차갑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고, 통점이 없으면 아무리 두드려 패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런 것을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온 몸에는 통점이 제일 많은데 1㎠안에 150개 정도의 통점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압점이 그 다음으로 많은데 1㎠당 25개, 냉점은 6~26개이고, 온점이 제일 적어서 아예 없는 부분도 있고 3개 정도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도 그러한 감각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감각점은 기쁨을 느끼는 감각점이 있고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감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감각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나 행복의 반대현상으로 느끼게 되는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쁨이 멀어지면 슬픔이 커지고 고통이 커지는 것이죠. 불만을 따로 느끼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점에 닿는 부분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에 있는 기쁨점과 행복점에 닿는 그 무엇이 없어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마3: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 주신다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마음 안에 들이셨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기쁨점과 행복점을 자극하십니다.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왔을 때에 마음 안에 있는 기쁨점과 행복점을 자극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기쁘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의 크기와 성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하나님 맞춤형 사이즈로 만들어졌습니다.
막8:3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는 천하를 다 집어넣어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고, 크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

님의 크기에 비하면 새 발의 피로 그것으로 인해 행복점과 만족점과 기쁨점이 자극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듯이 기쁨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점과 행복점은 하나님으로만 자극될 수 있게 지어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맞춤형 사이즈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변태가 왜 생기는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이 되었는데 그 금액이 무려 200억입니다. 재벌가 회장님이 아닌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금액이에요. 하도 돈이 없다 보니 200억은 태산에 태산을 더한 것처럼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로또에 당첨 된 사람의 마음의 크기에 비하면 새 발의 피만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0억으로는 도저히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그 사이즈를 채울 수도 없고 200억이라는 돈은 마음의 행복점과 기쁨점을 자극할 수도 없는 물체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돈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나 존재들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애인을 사귄다고 하면 그 애인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지처에 대한 것입니다. 200억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돈을 쓰면 기쁠 것이라고 믿어서, 꿈에 그리던 자동차 한 대를 샀습니다. 6억짜리 벤트리를 샀다고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조그만 흠집이라도 날까 겁내며 한 달을 탔는데, 옆의 사람을 보니 롤스로이스 팬텀을 타고 다닙니다. 200억 중의 6억은 아무것도 아니니 6억짜리 팬텀을 또 하나 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6억짜리 벤트리를 사면 기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살 때에는 잠깐 기뻤는데 한 달 지나자 그 기쁨이 없어져서 또 롤스로이스를 사는 것입니다. 이건희 씨가 마이바흐를 탄다고 하니 이번에는 마이바흐가 사고 싶습니다. 한 50억 있으면 여생은 먹고 살 수 있으므로 또 삽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존재들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 착각이 과도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쏟아 붓게 합니다.
쇼핑을 하는데 불필요한 것까지 사며, 쇼핑 행위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으로 믿고 쇼핑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변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 것들은 내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0억을 모은 사람이 그것으로는 모자를 것 같으니 그걸 투자해서 300억이 되길 바라며 로또 천 장을 더 사는데 변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적인 변태는 남녀관계가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버립니다. 남녀관계에서 찾던 기쁨이 사그라지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행동을 해보고, 좀 더 과하게 해보

고 하면서 변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써보니 살 때에는 기뻤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럴 때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쓰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이상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6억짜리를 사면 평생 만족 할 줄 알았는데 한 달을 못갑니다. 분명히 돈을 쓰면 기쁜 것은 맞기에 좀 더 돈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쓰고 더 쓰며 차가 두 대가 되고 세 대가 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세상의 자동차나 돈과 남녀관계라는 것은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극으로서의 존재는 하나님 한분뿐, 어떤 크기를 마음에 담아도 하나님 크기에 견줄 수조차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죠. 이 세상 것들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수용능력 제로입니다.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기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에 마음을 다 쏟아 붓는데,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어떻게 과부와 고아를 돌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불가능하죠.
25절에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라고 하십니다.
지금 돈이 200억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6억짜리 차를 사도 만족이 없으니 더 써야 하므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내 만족을 위해서 쓰기에도 200억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유무상통이 가능해집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이 현실로 느껴집니다. 마음에 하늘을 갖고 나니 행복점과 기쁨점이 자극되기 시작하고 행복하고 기쁘다보니 여유분이 생깁니다. 전에는 돈 쓰면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여유분이 없었는데 하늘로 기뻐지니 돈이 다 여유분입니다.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별로 없고 필요가 없으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변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얻을 기쁨과 만족이 많다고 믿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수용능력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아내는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 맞추어져 만들어진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크기에 분포되어 있는 내 마음의 행복점과 기쁨점을 자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아내에게 마음을 부어버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아내가 원망스럽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수용능력은 제로상태로 애초에 내 마음을 수용해서 내 마음의 크기에 분포되어 있는 행복점과 기쁨점을 자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남편이 내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기대고 기대하고 믿어버립니다. 믿음에 어긋나니 배반감을 느끼게 되고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 누구기에 기쁨과 행복의 반대되는 행동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한대 샀는데 그게 뭐기에 하나님 크기에 맞춰진 내 마음을 자극해서 영원무궁하게 기뻐할 것을 기대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족'은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품 백을 살 때는 좋았어요. 명품 백도 샀던 사람이 더 많이 사는데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품 백을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변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벤트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명품 백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런 영화를 주셨고 다윗에게 왕좌를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한정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변태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것을 추구하느냐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우리에게서 태어났다는 것 말고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내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그 마음을 만족시키라고 하는데 자식은 그걸 못합니다.
태초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것들에서 기쁨을 얻으라며 자꾸 마귀가 속살거리고 있습니다. 자식에게서 기쁨을 찾으라고 마귀가 내 마음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닦달하고 때리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변태입니다. 돈을 가지고 계속 사들이는 것이 변태이고, 좋은 차 아니면 안 된다면 변태이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도울 줄을 모르면 변태로 정상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당이 왜 있습니까? 내가 지상의 삶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내 미래가 어찌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점을 보러갑니다. 이게 변태죠.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하십니다.
아내와 함께 부부생활을 하는데, 아내와의 육체관계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만족이 없으니 짐승하고 음행의 관계를 갖습니다. 이게 변태입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 수용능력이 제로인 곳에 자꾸 내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없는 곳에서 찾다 보니 과도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간(獸姦)과 마찬가지입니다. 수간은 애굽에서 종교의식 속에 포함되었던 행동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신전의 창녀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풍요의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갈멜 산에서 엘리야와 대적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광란의 몸짓을 하는데 다 변태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의 의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태적 행위를 좋아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로는 만족을 못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살기에는 만족을 못해서 바알 신에게 가서 광란의 몸짓을 하며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늘로 가득 찬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땅을 접촉만 할뿐, 우리 마음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집어넣어도 수용능력 제로인 것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므로 변태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행위로 안 되니 이상한 행위를 하면서 기쁨을 달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시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돈 쓰며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 별의별 이상한 짓거리를 다 하며 변태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로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이 땅에 대해서는 접촉할 때마다 마음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약혼하지 않은 남의 처녀를 꼬드겨서 동침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서 온갖 변태 행위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로 기뻐해서 마음이 풍족할 때 아내를 보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기쁨의 형태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볼 때에 하늘로 만족해있다면 공부 못하는 자식일지라도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식 관계에서 감사만해서 되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 하나로 됩니다. 감사하다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야단을 쳐야 할 때에는 야단도 치게 하시고 칭찬하라고 하실 때에는 칭찬하면 되는데, 먼저 감사가 나와야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됩니다.
자식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자식은 내 마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냐며, 기쁨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는데 변태적인 행위로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로 기쁘면 유무상통이 일어납니다. 유무상통의 완벽한 모습까지는 못 가더라도 절반이나 30%라도 쫓아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쫓아가기는커녕 유무상통의 반대방향으로 200% 300%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긁어모으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있어야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으니 돈과의 관계에서 변태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돈돈돈 하며 사는 것이 변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프로이드가 인간의 모든 삶을 위한 에너지를 성 에너지로 보는데 이것이 변태이고, 칼 마르크스가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물질로 보는데 이것이 변태이고, 다윈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화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변태입니다. 다 변태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마음이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에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다 변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생래적 배냇병신으로서 변태행위 밖에는 못합니다. 땅에서 기쁨을 얻겠다는 생각자체가 배냇병신으로 변태의 뿌립니다. 이 유전적 변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겠다고 달려드는 모든 수용능력 제로인 이 세상 존재들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불만이 나타날 때마다 자식에 대해서 죽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나타날 대마다 아내가 수용능력 제로라는 점을 생각하며 죽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만이라면 돈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행복점과 기쁨점과 만족점에 충분히 닿도록 당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럴 때에 하늘로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접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면서 어제 말했던 신성한 노동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생래적 변태병신입니다. 변태행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하시고, 변태의 삶을 벗어나게 하셔서 '하늘로 기뻐하라 땅으로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